

---

「우수농업인 및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2019년 해외 선진농업 연수 귀국보고서**

---

- 기 간 : '19. 04. 03.(수) ~ 04. 11.(목) [7박 9일]
- 지 역 : 뉴질랜드(오클랜드), 호주(시드니, 브리즈번)
- 연 수 단 : 14명(도 1, 시군구 공무원 7명, 수상자 6명)
- 내 용 : 스마트 시대 해외 선진농업 경영 관련 영농, 체험,  
교육 등 현장방문



**예 산 군**  
**[농정유통과]**



# ■ 목 차 ■

<b>I. 연수 개요</b> .....	<b>2</b>
<b>II. 방문국가 일반현황</b> .....	<b>6</b>
<b>III. 농장체험 및 기관방문 내용</b> .....	<b>8</b>
1. SOUTHERN BELLE ORCHARD FARM .....	8
2. 아그로돔 관광농장 방문 .....	10
3. DARKES GLENBERNIE ORCHARD .....	17
4. 토브룩 관광형 농장체험 .....	19
5. Flemington Markets .....	24
6. 시로맷 와이너리 농장방문 .....	28
<b>IV. 뉴질랜드, 호주연수를 마치며</b> .....	<b>30</b>

# I

## 연수 개요

### 1. 연수목적

- 3농정책 등 농어업 발전에 기여한 우수농업인 및 공무원 역량 강화
- 농어촌발전상 수상자의 선진농업 연수를 통해 자긍심 고취
- 해외 우수 선진농업 등 견학을 통해 생산과 소비동향 파악
- 농업경영체의 경영마인드 향상을 위한 현장중심의 연수 실시

2. 연수기간 : 2019. 4. 3.(수) ~ 4. 11.(목) 【7박 9일】

3. 참 가 자 : 14명(도 1, 시군구 공무원 7명, 수상자 6명)

4. 연수국가 : 뉴질랜드, 호주

### 5. 주요방문기관 및 문화시찰

- 과일&와이너리 제조가공 Canelands Orchard 방문
- 6차산업 현장 Tobruk Farm 농장 견학
- 농식품 유통마켓 Flemington Mart 방문
- 소비자 맞춤형 품종개발 Plant & Food Research 농업연구소 방문
- 최첨단 스마트팜 Southern Belle Orchard Farm 시스템 견학

## 6. 연수일정

구 분	시 간	내 용	비 고
4월3일 (1일차)	16:50	○ 이동(인천공항→오클랜드공항)	KE124
4월4일 (2일차)	08:15  오후	○ 입국(오클랜드공항) <b>&lt;공식방문&gt;</b> - 사우스벨오차드팜	전용버스
4월5일 (3일차)	전일	<b>&lt;현장방문&gt;</b> - 아그로돔 관광농장 방문 (축산업과 관광 접목 사례)	전용버스
4월6일 (4일차)	전일	<b>【문화체험】</b> <b>반딧불 동굴탐험, 와이토모 동굴</b>	전용버스
4월7일 (5일차)	06:00~09:00  오후	○ 이동(오클랜드공항→시드니공항) <b>【문화체험】</b> 블루마운틴 국립공원	전용버스  NZ103
4월8일 (6일차)	오전  오후	<b>【공식방문】다크 그렌버린 농장 (DARKES GLENBERNIE ORCHARD)</b>  <b>&lt;현장방문&gt; 토브룩 관광형 농장 체험</b>	전용버스
4월9일 (7일차)	오전  오후	<b>【공식방문】플레밍턴 마켓</b> ※ 농산물 유통 현장 방문 <b>【문화체험】</b> 주립미술관, 시드니오페라하우스 등	전용버스
4월10일 (8일차)	오전  오후	○ 이동(시드니공항→브리즈번공항) <b>&lt;현장방문&gt;시로맷 와이너리 농장 방문</b>	VA925
4월11일 (9일차)		○ 이동(브리즈번공항→인천공항)	KE124

## 7. 참가자

구 분	시군별	소 속	직위(급)	성 명	성 별	비 고
<b>계</b>				<b>14명</b>		
인솔총괄	도	농업정책과	농업6급	원길연	남	
수상자	소 계			<b>7명</b>		
	공주시	우성면	-	안시영	남	
	아산시	제이에스	대표	한상룡	남	
	금산군	제원면	-	라호진	남	
	예산군	덕산면	-	정유경	여	
	서천군	마서면	-	나명순	여	
	홍성군	장곡면	-	맹다혜	여	
	태안군	이원면	-	김용구	남	
시.군 공무원	소 계			<b>6명</b>		
	공주시	농업정책과	팀 장	이서복	남	
	보령시	농업정책과	주무관	나선희	여	
	금산군	농업정책과	주무관	박미소	여	
	예산군	농정유통과	주무관	김시명	남	
	서천군	농정과	주무관	주성진	남	
	태안군	수산과	팀 장	고현정	남	

## II

# 방문국가 일반현황

## 1. 뉴질랜드(New Zealand) 일반현황

국 명	뉴질랜드(New Zealand)	
언 어	영어, 마오리어	
위 치	남태평양의 오스트레일리아 남동쪽(동경 174°00", 남위 41°00")	
면 적	27만 km <sup>2</sup> (북섬11.6만 km <sup>2</sup> , 남섬15.1만 km <sup>2</sup> , 기타 도서 3,542km <sup>2</sup> ) (남한의 2.7배)	
인 구	약 475만명(북섬 75%, 남섬 25%) (2018년 기준)	
수 도	웰링턴(Wellington)	
교 육	초등교육 6년+중등교육 총 9년간 의무교육, 초등교육·중등교육·고등교육(3년)·대학(3~4년) 구성	
국내총생산 (GDP)	2,015억 USD (1인당 GDP 41,593 USD,)	

## 2. 호주(Australia) 일반현황

국 명	Commonwealth of Australia	
민족구성	앵글로색슨 80% 기타유럽 및 아시아 18% 원주민 및 기타 2%	
행정구역	6개 주, 2개 준주, 565개 지방정부	
면 적	768만km <sup>2</sup> (한반도 35배), 면적은 세계6위	
인 구	2,400만명 (한국의 45%) - 인구의 3/4 해안선지역 거주	
수 도	캔버라 (인구 31만명)	
국내총생산 (GDP)	1인당 GDP : 64,156달러 (한국 23,837 달러) ※국민총생산(GDP) : 1.5조 달러, 세계 12위 (한국 1.2조 달러, 세계 15위)	

### III

## 농장체험 내용

### 1

## 【공식방문】 SOUTHERN BELLE ORCHARD FARM 방문

### 가. 시찰개요

- 일 시 : 2019. 4. 4(목)
- 장 소 : 418 Hinuera Road - Matamata  
- 오클랜드에서 로토루아로 가는길 마타마타에 위치
- 시찰내용 : 파프리카와 피조아 과일 등을 재배하는 유기농 농장  
자연친화적인 방법으로 재배하는 방법 설명

### 나.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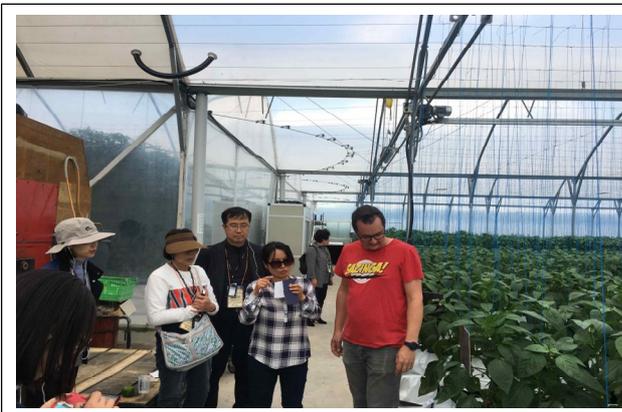
- 자연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방식인 건강한 제품의 성장은 이곳의 핵심 사업이며 '지속 가능한 생물 기원'을 목표로 두고 있다.
- 온실에서는 다양한 고추와 칠리 및 오이를 재배하고 있으며, 온실의 상황을 현저하게 개선하였다. 뿌리 질환을 통제하기 위해 뿌리 지역의 해로운 곤충과 유익한 토양 미생물을 통제하기 위해 포식자 곤충과 같은 생물학적 솔루션을 사용하여 건강한 재배 고추와 거대한 고추의 작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 달에 한 번 물과 양분 샘플을 힐 연구소에 보내 최적 생산에 필요한 영양소 균형을 조정하고 있다.
- 봄(10월, 11월)에 과수원에는 풍부한 꽃을 볼 수 있으며, 꿀벌보다는 새들이 수분을 받는다.
- 온실은 3대의 컴퓨터가 온도, 습도, 양분 밀도 및 관개 순서와 함께 작동하며 제어하고 있으며, 식물이 사용하지 않는 영양소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순환시스템 역할을 하고 있다.

- 주탱크는 재순환 되어야하며, 비료와 물을 낭비하지 않고 온실에서는 토양과 대수층의 침출수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유지한다.

## 다. 주요 질의응답

- Q. 한국 청년들은 농업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한국 청년들에게 해줄 말씀은?
- ▶ A. 농업은 힘들지만 가족이 함께 농업 비즈니스를 함에 따라 1년도 안된 아기를 엄마가 돌봐주셔서 육아에 대한 부담이 덜하고, 직장에 억매이지 않은 자유스러움이 있다.

## 라. 현장사진



## 2

### 【현장방문】 아그로돔 관광농장 방문

#### 1. 시찰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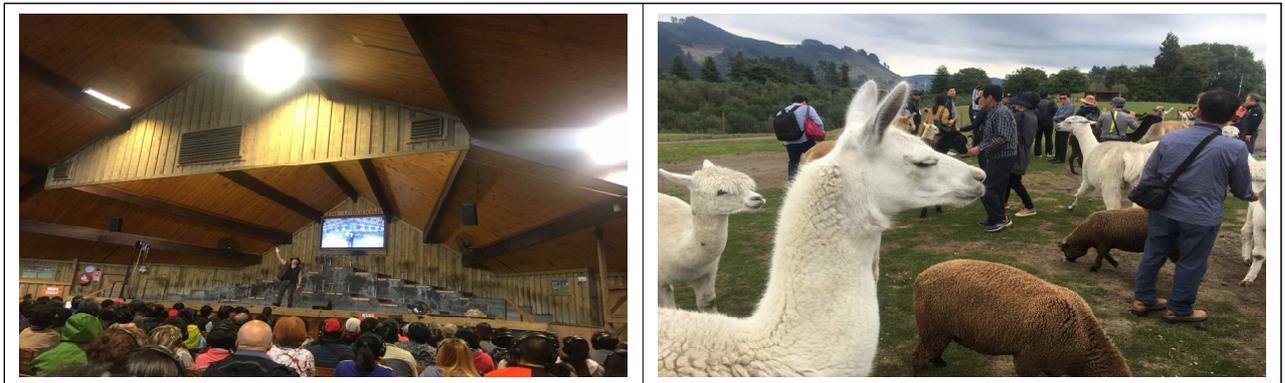
- 일 시 : 2019. 4. 5(금)
- 장 소 : 북섬 로토루아에 위치
- 시찰내용
  - 1971년 설립하였으며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자리매김
  - 동물 먹이주기 체험, 양털깎기, 양몰이개 쇼, 아기양 젓먹이기 체험, 젓소 젓짜기 체험, 유기농 체험 팜투어 가능

- 이곳은 160ha에 달하는 드넓은 목장에 1200여 마리의 양과 120마리의 육우, 이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소, 말, 타조, 돼지 등을 관람할 수 있다.

## 2. 시사점

- ‘아그로돔’은 세계 양털 깎기 챔피언인 가드프레이 보웬과 로토로아 지역 농부였던 조지 하포드가 1970년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세계 농업박람회에 참가한 것을 계기로 설립됐다.
- 축산농장을 양털 깎기 쇼와 양몰이쇼, 팜투어를 하는 관광농원으로 전환시킨 것이며, 트랙터를 타고 이동하며 동물들을 직접 만져보고 먹이도 주며 동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체험을 하게 된다.

## 3. 현장사진



### 3

## 【공식방문】 DARKES GLENBERNIE ORCHARD 방문

### 1. 방문개요

- 일시 : 2019. 4. 8(월)
- 장소 : 시드니의 남쪽으로 차로 60분 거리에 있음
- 기관개요 : 가족의 4대가 1939년 이래 Darkes Forest에서 사과와 다른 과일을 재배하고 있으며, 주요 생산품으로 사과 사이다, 사과 식초, 꿀, 포도주를 만들고 농장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행사를 진행한다.

## 2. 연수내용

- 시드니에 위치한 과수농장을 방문하여 체험활동

## 3. 주요 질의응답

- Q. 이렇게 큰 규모의 농장을 운영하기까지의 과정은?
  - ▶ A. 호주에서는 그렇게 큰 농장은 아니다. 살충제를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오가닉) 농산물을 키우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시드니에서는 아이들 점심에 런치박스에 넣을 수 있는 작은 사과가 인기가 많다. 한국처럼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솎아주기, 꽃 적심을 하지 않고 있다.
- Q. 생산한 과수에 대한 판매루트는?
  - ▶ A. 6차 산업화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생산한 원물을 방문객들에게 직접 판매하기도 한다. 사과는 1년에 3,500톤을 생산하고 있으며, 도매상을 통하여 시드니 청과물 시장에 납품한다. 도매는 40%, 직판매는 60%의 비중을 두고 있다.
  - ▶ A. 정부의 역할보다는 사과를 재배하는 사람들이 협회를 구성하여 인증한 제품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농장에서는 결혼, 피로연, 파티 사업 등을 통하여 부가 창출하고 있다.

## 4. 시사점

- 친환경 농법을 적용하여 현 시장 환경에 적응하여 성공한 사례로 앞으로 우리나라의 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6차 산업과 접목하여 농장이 단순 생산·판매만 하는 곳이 아니라 체험·관광을 아우를 수 있도록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 5. 방문사진



### 4

## 【현장방문】 토브룩 관광형 농장 방문

### 1. 시찰개요

- 일 시 : 2019. 4. 8(월)
- 장 소 : 호주 시드니 근교
- 시찰내용 : 관광농장으로 축산업과 관광의 접목을 통한 소득증대

### 2. 시사점

- 아웃백의 숲속에 위치한 전통농장으로 양몰이쇼, 양털깎기, 부메랑 던지기, 채찍 크래킹과 같은 볼거리 즐길 거리뿐만 아니라 댐퍼 빵, 빌리티 시식, 호주식 BBQ까지 맛볼 수 있어 오감이 만족할 수 있는 농장체험이다.

### 3. 현장사진



## 1. 방문개요

- 일시 : 2019. 4. 9(화)
- 장소 : Flemington Markets
- 기관개요
  - 다문화 국가의 특징을 살려, 전세계에서 들어온 갖가지 희귀한 농수산물을 구경하고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인구 450만명이 거주하는 남태평양 최대의 도시인 시드니에 농산물 공급의 중추 역할을 하며 연간 2조원에 달하는 과일, 채소 등 청과물과 화훼를 전문으로 다루는 도매 시장

## 2. 연수내용

- 시드니 농식품 유통마켓 현지 시찰

## 3. 주요 질의응답

- Q. 플래밍 마켓의 특이점은?
  - ▶ A. 농업인들과 소비자간 직거래를 통해 유통을 7~8단계에서 3~4단계로 줄여 생산농업인은 소득을 극대화하고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에 신선 농산물을 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 A. 도매시장이면서도 경매 없이 모든 농산물이 농업인과 소비자 간의 직거래로 흥정이 이뤄지는 특이한 유통구조를 가진 시장으로 신선도가 생명인 농산물에게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 4. 시사점

- 플래밍턴 시장은 시드니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와 규모 그리고 상품의 질뿐만 아니라, 동서양 문화가 한자리에 어우러진 공간으로 가장 잘 알려진 곳이다.

- 플레밍턴 시장의 원조는 1830년대 시드니 George street에 생긴 소규모의 지역 농축산물 및 가내 무역 그리고 서커스의 장소였는데, 그 곳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주변 경관이 지저분해지자 1960년 후반에 거의 모든 매점을 플레밍턴 지역으로 옮기게 되었다.
- 새로운 지역에 자리를 잡게 된 이 시장은 더욱 넓은 범위의 신선한 과일과 채소, 꽃이 있는 흥미롭고 가 볼만한 가치로 꾸준히 방문자들의 관심을 사로잡고 있다.

## 5. 방문사진



## 6

### 【현장방문】 시로멧 와이너리 농장 방문

#### 1. 방문개요

- 일시 : 2019. 4. 10(수)
- 장소 : 시로멧(SIRROMET) 와이너리 농장
- 기관개요
  - 시로멧은 퀴즐랜드에서 가장 유명한 와인 농장으로 5년간의 계획과 연구를 통해 2000년도에 프리미어 와인농장으로 오픈했다.
  - 베스트 퀴즐랜드 투어리스트 레스토랑, 베스트 와이너리 레스토랑, 베스트 뉴 관광객 유치상을 수상 하는 등 최고의 와이너리로 자리 잡고 있다.

## 2. 연수내용

- 투스칸 테라스 식당에서는 계절별로 현지에서 유기농으로 재배된 과일, 채소, 허브, 양념 등으로 요리된 메뉴와 와인농장에서 생산된 시라즈(Shiraz) 등의 다양한 와인의 맛을 즐길 수 있다.

## 3. 시사점

- 퀸즈랜드주의 대표적 와이너리로 가장 큰 와인공장이며 프리미엄 와인 수상을 많이 했다고 한다.
- 2013년 한국 대전 푸드&와인 페스티벌에 참가한 만큼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시로멧 와인은 2000년 겨울에 오픈하며 짧은 전통이지만, 지리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해결하며 성장했다.
- 현재는 540메이커에 달하는 아름답게 잘 다듬어진 포도밭과 농장을 소유하게 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와인대회에 출품해 최근까지 약400여 개가 넘는 상을 수상하며, 호주 퀸즐랜드 대표 와이너리로 인정받고 있다.

## 5. 방문사진



## IV

## 뉴질랜드, 호주 연수를 마치며

- 7박 9일의 뉴질랜드, 호주 국외연수 일정은 정말 많은 것을 보고 느낀 값진 시간이었다. 광활한 자연과 목가적인 풍경, 푸른 해변의 아름다움 등 독특한 자연 환경이 아직도 머릿속에 맴돈다.
- 뉴질랜드는 443만명의 인구가 1,000만 마리의 소와 5,000만 마리의 양을 키우며, 양의 종류도 무려 19가지나 된다. 차창에 스치는 풍경은 강과 호수 그리고 산림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푸른 초원이다. 드넓은 초원에서는 양떼를 비롯하여 소와 말, 사슴, 타조 등이 한가롭게 노닐고 있어 동물들의 천국이 여기구나 싶었다.
- 동물로 태어나 여기서 한 평생을 살라고 해도 마다할 이유가 없을 정도로 정말 훌륭한 곳이었다. 이 나라는 우리나라와 달리 가축을 가두는 울타리가 없다. 법으로 방목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기온이 온난하여 가둘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 가축들은 초원에서 태어나 초원에서 자라며, 자유롭게 짝짓기를 하여 2세를 출산한다. 우리나라의 가축들처럼 주인의 보살핌을 받지 않는다. 밤낮으로 축사에서 지내며 사료를 먹고 사는 우리나라의 소나 염소와는 처지가 다르다. 밤낮과 계절에 구애받지 않고 초원에서 평생을 보낸다.
- 뉴질랜드의 양떼는 사흘 맑고 나흘 비가 내린다는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초원에서 어울려 살며 비나 눈을 맞고 살아야하기 때문에 더 건강하며 고기의 육질이 좋을 수밖에 없다. 뉴질랜드에 있는 동안 차를 타고 지나면서 차창 밖을 내다보면 양떼들이 흩어져 노는 모습이 부럽기까지 했다.
- 세계적인 청정 환경을 자랑하는 나라인 호주는 매년 대기 청정도 Top에 뽑히며, 블루마운틴의 신선한 공기를 수출하기도 했을 정도로 깨끗한 공기를 가지고 있어 미세먼지 없는 여행을 즐길 수 있다.

- 또한 호주의 바다는 세계에서 가장 많고 다양한 해양 생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를 포함한 해양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명소들도 즐비하다. 또한 맑은 날씨와 함께 육지와 하늘에서 즐길 수 있는 스포츠도 다양하다.
- 농업부분 연구에 있어서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호주는 최근에 농업 및 식품 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허브로서의 지위를 굳히고 있다. 다양한 기후대와 생태계를 더해 비즈니스 친화적인 환경을 자랑하는 동시에 아시아의 고성장 국가들과 긴밀한 연계를 맺고 있는 호주는 농식품 기술 이노베이션의 중심지가 되기 위해 이러한 경쟁우위를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있다.
- 호주의 농식품 생산업자들은 원산지 추적이 가능한 고품질의 상품을 수출시장에 판매할 때도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높은 적응성을 보이고 있다. 호주의 농식품 기술 솔루션은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으며, 많은 해외투자자들과 리서치 파트너 회사들이 호주를 테스트베드 또는 지역 시장전초기지로 삼고 있다.
- 농식품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지식, 문제해결에 집중하는 태도, 협력 사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등이 상대적으로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 현실에는 맞지 않지만, 농업인들의 기본 운영방향을 확실히 설정하고 재배하는 농작물을 이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비자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개발, 소득 창출로 이어지는 체제는 이번 연수의 가장 큰 배움이었다.